

2022 문화계 결산 (1) 공연·축제

‘일상회복’ 활기... 제주콘텐츠 창작 빛났다

제주국제관악제·탐라문화제 3년만에 돌아온 ‘대면 행사’ 뮤지컬·오페라·연극공연은 제주 특색 담아 관객 맞이

코로나19는 여전히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문화예술계의 일상 회복에도 한층 속도가 붙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공연과 축제, 전시와 문학·출판, 문화행정 등 3회에 걸쳐 2022년 제주문화계를 돌아본다.

올해 제주 공연계엔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응원하듯 선물 같은 공연·행사가 쏟아졌다.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 무대가 진행되면서 도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일상회복과 함께 제주국제관악제와 탐라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가 3년 만에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축제의 꽃’인 거리퍼레이드가 재개되면서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지난해 처음 시즌제(여름·겨울)를 도입한 제주국제관악제는 올해(제27회) 여름·가을시즌으로 치러졌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여파로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비대면과 ‘국내’ 관악제로 치러야 했지만 올해 여름시즌은 예년만큼은 아니어도 해외팀이 무대에 올랐고, 제17



사진 맨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올해 열린 탐라문화제 퍼레이드, 국제관악제 퍼레이드, 제주도립예술단 합동 공연 ‘애랑이 넘실’.

회 제주국제관악·타악공쿠르는 대면으로 진행됐다.

사반세기를 넘긴 축제지만 관객 확보는 여전히 과제며, 조직위 사무국의 전문인력 확충 등 탄탄한 조직력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내년부터 봄·여름 시즌이 예고됐는데, 고정되지 않은 시즌제가 향후 제대로 안착될지도 관심사다.

올해 ‘60갑자를 돌아 다시 찾해’를 맞은 탐라문화제(61회)는 코로나19의 제약이 풀리며 전면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60년을 이어왔지만 고정 공연장이 없다는 한계 속 일반 관람객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관객층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문이 여전히

했다. 제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최측의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첫선을 보인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은 좋은 취지에도 함께 가치를 공유할 시민들의 발걸음이 뜸해 관객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 예술인들의 새로운 시도, 도전은 빛났다. 특히 제주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창작 무대가 잇따라 관객과 마주했다.

제주도립예술단은 합동 공연 처음으로 제주의 특색을 담은, ‘베비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대 ‘애랑이 넘실’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 도립무용단은 제주

의 보물 탐라순력도를 현대적 한국 무용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용 공연 ‘순력’도 선보였다.

제주의 청소년을 주축으로 시민과 예술인들이 힘을 모은 제주시의 창작뮤지컬 ‘부흥휴와 꼬마탐험대’가 첫선을 보였고, 서귀포시의 창작 오페라 ‘이중섭’도 ‘2022년 버전’으로 새롭게 연출돼 관객과 만났다.

올해 처음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제1회 ‘세상을 바꾼 콘텐츠’의 ‘망각을 일깨운 콘텐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무용·국악계에서는 “전문인 양성” 목소리가 거듭 강조됐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사)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여정에 나서며 연중 ‘제주음악제(Korea-Jeju Music Festival(K-JMF))’를 펼쳐보였다. 일환으로 창작오페라 ‘홍윤애’ 하이라이트 공연을 제주목 관아에서 선보이며 또 하나의 ‘제주산 오페라’ 탄생을 알렸다.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제주연극제, 소극장 연극축제, 더불어 놀다 연극제 등을 이어가고, 예술공간 오이가 새로운 4·3창작극과 가족음악 창작극을 선보이고, 극단 공용사가 제주어 공연 ‘맥베스’를 무대에 올리는 등 연극계 움직임도 활발했다. 오로지자



황학주의 제주살이 (66)

당신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이웃 마을에 도자기를 하는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친구로 대해 주어 가끔 찾아옵니다. 그가 작업실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흙을 주무르거나 바르는 것을 보면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어떤 영혼이 빛어진다.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그릇들 앞에서 그와 차를 마실 때 눈은 허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형형색색의 사람이 사는 지상에 내리는 눈은 급전이 필요한 어떤 아버지의 머리 위에도, 병실 창밖을 바라보는 위중한 환자의 눈에도 내립니다. 바람이 치면 어느 계단 밑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누더기 옷들을 겹쳐 놓는 노숙자의 영당이 근처까지 흰 눈은 밀려 내려왔지요. 외톨이 노인이 말없이 가마에서 그릇을 구울 때,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 속에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 때 눈은 하얗게 내려 쌓입니다.

눈을 맞으며 우리는 만납니다. 짝짝이 신발처럼 서로 맞지 않는 형편과 사정을 맞추어가며 한 골목이 다른 골목을 찾아 가듯이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사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로 당신은 기도로 우리는 눈 내리는 날을 살 수밖에 없고, 늙어가는 삶에 순응하기 위해 혹은 저항하기 위해 함께 눈

우리는 식량과 지식에 굶주리면서 열심히 살았고, 우리에게 무슨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서 우리가 동류의식을 가지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가보고 싶은 행복이 아직 있으며, 부끄러움에 물감을 더 넣듯이 뻥개진 얼굴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에게로, 사랑이 아닌 곳까지도 갈 수 있어서 우리는 오래 만나며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릇을 굽는 걸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웃실 어디선가 누에가 먹고 있는 뽕잎 소리 같은 눈 내리는 소리는 영혼의 글귀처럼 소곤거리고, 내가 빛지고 있는 사람들을 들려줍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결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억일 텐데 지리멸렬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희망과 축복이 되어준 오랜 세월의 기억을 가진 크리스마스가 오고, 그리고 내가 빛고 비는 고독이 이렇게도 느린 걸음으로 늙은 내면을 헤매 때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세상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립니다. 당신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계속된 ‘황학주의 제주살이’는 오늘자로 마감합니다. 매주 찾아 읽어봐 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글을 통해 “바람처럼 만질 수 없고 구름처럼 비물질적인” 행복을 찾아 또 다른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겠지요. <끝> <시인>

“시낭송과 함께 배우는 메타버스”

미래창의캠퍼스 실전 교육 내년 1월9일까지 참가 접수

시낭송과 메타버스가 만난다. 시낭송 실전 비법부터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미래창의캠퍼스는 내년 1월 11일 캠퍼스 제주시 강의장(한라일

보 3층)에서 ‘고급 시낭송 클리닉과 스마트 메타버스 시낭송 실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와 국제미래학회, 제주클린콘텐츠본부, 한라일보가 함께 마련했다.

교육은 11일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모두 5시간의 과정으로, 고급 시낭송은 물론 스마트 메타버스로 시낭송 교육과 대회 개최를

이킬 수 있도록 구성된다.

첫 강의를 ‘고급 시낭송 비법 실전’을 주제로 시낭송 잘하는 비법과 시낭송 발성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된다. 2강에선 고급 시낭송 퍼포먼스 방법과 사례, 시낭송 개인별 클리닉이 이어진다. 3-5강은 ‘이프랜드(iland) 메타버스 가입 및 활용법 익히기 실전’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활용 시낭송 교육과 대회 익히기 등으로 이뤄진다.

모든 과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지도에 나선다. 박영애 재능시낭송

협회 2대회장과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공동회장), 심현수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대표, 김동호 제주클린콘텐츠본부 대표가 교수진으로 초빙됐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교육비는 20만원(수강료와 수료증, 자격증 취득비 포함)이다. 접수마감은 2023년 1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라일보 기획부(064-750-2543)로 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2023 올해의 책’ 추천 접수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좋은 책 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내년 1월 6일까지 ‘2023 책 읽는 제주시’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추

천 도서를 모집한다. 올해의 책은 총 4개 분야(성인, 제주문학, 청소년, 어린이)에서 각 1권씩 선정되는데 선정에 앞서 시민 의견을 반영한 도서를 ‘책섬, 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는다. 오로지자

올 겨울, 따뜻한 혜택으로 노비타를 만나보세요

무료설치 | 에코백 증정 | 비데 필터 증정(2개)

2022.11.09 - 12.31

스마트플러스비데 BD-AC50N 4만원 할인 239,000원 199,000원 #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	3년무상A/S BD-AFE50N 7만원 할인 299,000원 229,000원 #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	살균비데 BD-H500E0 4만원 할인 335,000원 295,000원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자동노즐세척 #강력방수	살균비데(리모컨) BD-H700H0 5만원 할인 419,000원 369,000원 #매일자동살균 #세가지수류 #3D무브 #강력방수
---	---	--	---

novita A KOHLER COMPANY